일자리 40만개 증가에도… 20대 이하만 5만6000개 '증발'

데이터처,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대 이하 일자리 비중 13.4% 하락
제조업서 2.8만개 줄어 감소분 절반
정보통신업서도 1.5만개 일자리 감소

60대 이상, 전체 증가분 68% 차지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일자리 확대



서울 시내에서 열린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AI 기업 매칭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사이 5만6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분의 절반은 제조업(-2만8000개)에서 보고됐다. 전 연령대 일자리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0.6%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40만 개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135만6000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만6000개(1.9%)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 11만1000개에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 올해 1분기 29만2000개에 이어 2분기 들어 더 확대됐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286만8000개로 1년 전 대비 5만6000개(1.9%)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0%에서 13.4%로 줄었다. 전체 나이대 중 일자리가 감소한 집단은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만 2만8000개 감소했다. 이어 정보통신업 -1만5000개, 보건·사회복지업 -1만1000개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전체 일자리가 16만1000개 늘어 산업별 증가 폭이 가장 컸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같은 산업에서도 연령에 따라 일자리 흐름이 달랐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일자리는 429만5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27만7000개(6.9%)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8%에 해당한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2만6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2만4000개, 제조업에서 2만1000개 각각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0대를 중심으로 돌봄·요양보호사 등 일자리가 늘어나며 보건·사회복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0대 일자리는 12만3000개(2.7%), 50대는 5만9000개(1.2%), 40대는 4000개(0.1%) 늘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22.9%로 가장 컸다. 이어 40대 21.8%, 30대 21.7%, 60대 이상 20.1%, 20대 이하 13.4%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가 16만1000개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만2000개, 보건업에서 3만9000개 늘었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는 6만7000개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도 전문 서비스업과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등을 중심으로 4만3000개 증가했다.

반면,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4000개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1만6000개 사라졌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3만9000개, 여성 일자리가 26만8000개 증가했다.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1만9000개, 숙박·음식업에서 4만2000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64만3000개로 73.2%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대체 일자리는 326만1000개로 15.3%였다. 기업체 생성 및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45만3000개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04만6000개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2035년 신규 택시 100% 전기차 전환 추진

기후부·국토부, 택시업계와 업무협약
긴 주행거리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커
급속충전시설 확충 등 전환 부담 완화

정부가 2035년까지 신규 도입되는 택시를 원칙적으로 100%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손을 잡았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택시 부문의 전동화를 앞당겨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택시 전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등록된 약 22만 9000대의 택시 가운데 전기택시는 약 3만 9000대(17%) 수준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만 5000대가 신규 등록된 점을 감안해,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대상 택시가 원칙적으로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택시 전동화는 일반 승용차 전환에 비해 감축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힌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택시 평균 주행거리는 일반 승용차 대비 개인택시 약 5.8배, 법인택시 약 7.3배에 이른다. 내연기관차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시민들이 친환경 모빌리티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 분담에 나선다. 기후부는 차고지 등 급속충전시설 확충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다각화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차 안전성 홍보에 힘쓴다. 국토부 역시 택시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간다.

택시업계는 전기차 현장 확산에 주력한다.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기택시에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인식을 높여 법인택시 전환을 선도하며, 개인택시 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방식 안내와 인식 제고로 개인택시 전환을 독려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완성하려면 전환 수요가 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 수요의 전동화를 조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기택시로의 전환은 국민께 더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드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판을 드넓히는 일"이라며 "높은 차량 가격과 긴 충전시간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 자체 개발 AI '파워북', 공공기관 확산

자체 개발 AI 타 기관 확산 첫 사례
에너지 넘어 SOC까지 확대 추진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자체 개발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업무지원 서비스 '파워북(PowerBook)'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통해 자체 개발 AI를 타 기관으로 옮긴 첫 사례다.

한전은 지난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 4개 공공기관과 '파워북' 공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과 전현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AI 소위원장,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재경부 주관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뒤, 올해 7월 협의체 에너지 분과 정기회의에서 파워북을 소개하고 수요 확인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

파워북은 한전 AI혁신단 산하 자체 개발 전담 조직인 FAST팀이 애자일(Agile) 방식으로 만든 업무지원 서비스다. 직원 개인 PC에 보관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문서 검색·분석, 핵심 내용 요약 및 질의응답, 보고서·PPT 작성 등을 돕는다.

한전은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별 유사 AI 중복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 AI 전환(AX)의 걸림돌로 꼽혀온 사내 자료 유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협의체 내 다른 분과까지 파워북 도입 수요를 넓혀 공공기관 AI 전환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사, 중·동부 유럽 물류거점 확보 나선다

크로아티아 리예카 물류센터 건립
2028년 개장… 국내 기업 수출입 지원

부산항만공사(BPA)가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배후단지에 중·동부 유럽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공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이투이로지스틱스솔루션과 크로아티아 리예카 물류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물류기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참여사들은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리예카항 배후 쿠쿨랴노보 산업단지 내 대지면적 1만7709㎡(5356평), 연면적 8919㎡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이후 현지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배후단지에 건립될 물류센터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리예카항은 아드리아해 북부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주요 항만으로, 중·동부 유럽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관문이다.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는 배터리·자동차 부품·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이 자리하고 있다. 리예카 물류센터는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수출입을 뒷받침하고, 현지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해외 물류센터 개발·운영 경험을, KIND는 해외투자 개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투이로지스틱스솔루션은 크로아티아 현지 물류사업 경험을 활용해 현지법인을 통한 출자와 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합작투자계약은 부산항만공사의 유럽 물류네트워크를 중·동부 유럽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K-방산 中企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방위산업진흥회와 수출 지원 협약
8200억 상생금융·시설투자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K-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방산 3사·시중은행과 손잡은 8200억 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과 해외 시설투자 금융 다각화 등 방산 분야 지원 폭도 넓힌다.

무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K-방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방산 시장 진입 지원, 공동 설명회 및 컨설팅 제공 등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무보는 방산 중소·중견 협력사를 겨냥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3사와 하나·우리·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을 맺고 중소·중견 협력사에 총 8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수출계약보증서 발급 지원을 넘어 해외 공장 설립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까지 금융 제공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K-방산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생태계의 허리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